

## 「노벨평화상 수상자 히로시마·나가사키 선언」

64년 전에 무서운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되어 세계는 핵무기의 파괴력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2010년 봄에 유엔에서 개최되는 핵확산방지조약(NPT) 재검토 회의를 1년 후로 앞두고, 아래에 서명한 우리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로의 호소에 찬동하고,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굳은 결의로써 이 목표를 추구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들은 핵확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미 세계 대부분의 모든 나라가 비준하였고, 1970년에 발효된 핵군축을 의무화하는 NP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을 이행하여 우리의 세계로부터 핵무기를 폐지한다고 하는 전진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핵보유국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인하여 다른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생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비핵국으로 확산하는 위협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서운 무기들을 폐기할 의무를 지고 있는 핵보유국의 박약한 의지에 대해서도 근심이 아닐수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3번째의 핵무기로 인한 악몽이 벌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역사의 행운인 우연만은 아닙니다. 제 2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계에 꾸준히 호소해 온 피폭자들의 강한 결의가 대참사를 막는 일에 확실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더우기 평화를 희구하는 피폭자들을 지지해 온 몇 백만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인류 전체가 핵의 사용을 자제해 왔다는 현실은 인간에게는 보다 건전하고 숭고한 자질, 즉 폭력을 물리치고,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NPT 재검토 회의에 이르는 앞으로의 기간, 이 숭고한 자질이 우리들의 활동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높여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국 정부는 지금 조약의 이행상황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침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처음으로 핵군축, 핵무기 폐지를 향한

현실적인 전진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퍼져간다면, 세계의 지도자들은 핵무기의 불확산인지, 핵무기로 우위에 서겠다고 하는 정책에 고집할 것인지를 명확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핵 확산을 저지하고 폐지로의 길을 걸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참화가 되풀이되는 것을 기다릴 것인지를 어느 쪽일 것입니다.

인류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46년에 발신한 다음과 같은 경고를 오래 전부터 귀담아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방되어진 원자의 힘은 모든 것을 변화시켜 버렸으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점차 미증유의 파멸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만일 인류가 살아 남고자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각국 정부는 국제기관이나 비정부조직, 또는 생존자들과 제휴하여 지뢰와 클러스터 폭탄이라고 하는 2개의 무차별 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성립시켰습니다. 세계가 이러한 무기가 인류에게 참사를 초래한다는 것을 가까스로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금지시킨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핵무기가 인류에게 터무니없는 규모의 참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무차별하고 부도덕하며, 위법적인 병기입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에의 원폭투하와 그 후의 장기간에 걸친 영향에서도 명백하듯이 핵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군사 무기입니다.

핵무기의 폐지는 가능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핵무기 폐지는 전 인류에게 있어서 보다 안전한 지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의 우리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국의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핵군축, 핵무기 폐지를 향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절박해진 위험을 인식하고, 그 전진을 위하여 정치적 의지를 환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고, 인류에게 보다 큰 평화가 찾아오도록 우리들은 결속해서 이 구상을 현실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